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INCENDIARY

가제 : 기억 도둑 레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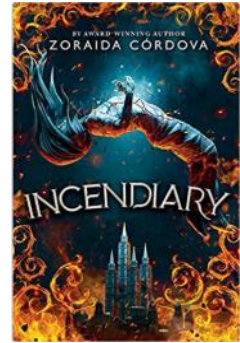
저자 : Zoraida Cordova

출판사: Disney-Hyperion

발행일: 2020년 4월 28일

분량 : 464 페이지

장르 : 판타지



* 신비한 마법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려는 왕국, 그에 맞서 잃어버린 역사와 과거를 되찾으려는 마법사들의 반격, 복수, 사랑을 그린 판타지 시리즈

* 열띤 옥션 끝에 미국 Disney, 영국 Hodder에 판권 계약

푸에르토 레오네스 왕국과 메모리아 왕국이 서로 나란히 자리하고 함께 번성하던 평화로운 시대는 '사자의 자손'이라 불리는 가문이 권력을 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 같은 하늘 아래 공존은 없다고 판단한 사자의 자손들은 메모리아의 영토를 모두 차지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제각기 다른 마법 능력 '모리아'를 갖고 태어난 그곳 사람들, 위스퍼들을 모조리 내쫓는다. 모리아를 가진 자는 모두 왕국의 배신자로 간주되고 이들을 숨겨주거나 보살펴주는 사람들 역시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왕국의 엄명이 내려진 후 모리아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특별한 능력을 숨기는 법부터 배워야 했다. 그러나 이런 명령까지 내린 새 왕, 페르디난도의 왕국에서 아예 데려다 키울 만큼 누구보다 강하고 귀중한 마법을 타고 난 소녀가 나타난다. 기억을 훔치는 마법사, 레나타 콘비다는 왕국에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닌 사자 가문의 힘을 복돋아줄 소중한 존재가 되어 말을 할 줄도 모르던 시기부터 왕궁에서 자란다. 그러나 스스로도 두려워하는 능력을 왕이 잔인한 무기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은 레나타는 목숨을 걸고 왕궁을 탈출한다. 이제 레나타에게 남은 것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마법으로 파괴된 무고한 사람들이 페르디난도의 폭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아무 것도 몰랐던 자신을 사악한 목적에 이용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일뿐이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고문하고 사형에 처한 것으로 전해지는 1400년대 후반의 끔찍한 스페인 종교재판에서 영감을 얻은 분열된 세계를 배경으로, 레나타와 무너진 메모리아 왕국을 되찾으려는 위스퍼들의 활약이 숨 쉴 틈 없이 빠르게 전개되는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다.

순식간에 납치되어 페르디난도 왕의 소유물이 된 레나타는 안달루시아의 거대한 궁전에서 자랐다. 레나타는 같은 위스퍼들도 두려워할 만큼 기억을 훔치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몰래 숨어사는 위스퍼를 색출해내는 기가 막힌 탐지기로 레나타의 능력을 악용했다. 마법사라는 이유로 무참히 목숨을 잃은 수천 명의 동족들의 죽음을 앞장서서 지원한 것이다.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왕궁 한 칸에서 꿈쩍도 못한 채 울부짖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지옥 같은 왕궁에서 탈출할 기회만 노리던 레나타는 마침내 거대한 궁전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하고, 무자비한 살육에서 겨우 살아 남아 몰래 힘을 키우던 위스퍼들의 마을로 달아난다. 기억을 훔쳐 메모리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레나타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마을 원로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 소녀였던 레나타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당하고 이용당한 시간을 이해해준 현명한 사람들 덕분에 위스퍼의 일원이 된 레나타는 여전히 따가운 사람들의 눈총 속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갚기 위해 노력한다.

환상을 만들어내는 마법사이자 왕국 군대와 맞설 비밀 병력을 이끄는 데즈의 곁에서 모든 능력을 발휘해 메모리아의 재건을 돕던 레나타는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무기가 될 ‘알만 스톤’이 나타났다. 7-8년 전, 레나타에게 남의 기억을 훔치는 능력을 왕궁에서처럼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힘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위스퍼의 은인 셀레스테가 그 소중한 알만 스톤을 위스퍼에게 전하려다 왕국군에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자 레나타는 분명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스톤을 찾기 위해 과감히 나선다. 그러나 지칠 줄 모르고 왕국을 건드리는 마법사들을 싹 쓸어버리기로 마음 먹은 페르디난도 왕의 외동아들,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잔혹하다고 소문난 카스티안 왕자가 뒤를 바짝 쫓고, 결국 데즈가 그의 술수에 휘말려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레나타를 향한 메모리아 사람들의 적개심으로부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켜주던 데즈가 사라지고 셀레스테까지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홀로 알만 스톤을 찾아 왕국에 반격할 가장 큰 힘을 마련해야 하는 레나타는 정면 돌파를 결심한다.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발을 들일 일이 없으리라 생각한 왕궁으로 돌아가서 데즈를 구출하기로 한 것이다. 누구보다 그곳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 왕궁이 돌아가는 형편을 꿰뚫고 있는 레나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페르디난도 왕이 메모리아 인들을 처형하기 위해 레나타로 하여금 훔치게 만든 수천 명의 기억들이 불쑥, 예고 없이 레나타의 머릿속에서 튀어나와 뒤엉키기 시작하고, 레나타는 불안정한 상태로 도착한 왕궁에서 새로이 깨어나는 기억들로 큰 혼란을 겪는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남동생을 제 손으로 죽인 괴물로 알려진 카스티안 왕자와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갑자기 되살아나고, 레나타는 환상을 만드는 마법의 달인인 데즈에게서 목격했던 놀라운 능력을 카스티안 역시 발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떻게 마법사를 극도로 혐오하는 왕자가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왜 레나타의 눈 앞에 나타난 카스티안은 냉혈한 살인자라는 소문과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할까? 왕궁 깊숙이 파고들수록 자신과 카스티안, 데즈의 출생을 둘러싼 무서운 비밀이 하나 둘 밝혀지고, 레나타는 이 고통스러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촘촘한 스토리와 세 주인공의 엇갈리는 사랑, 반전이 흡입력을 더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소라이다 코르도바(Zoraida Cordova)는 에과도르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자랐다. 2017년 국제 도서상 최우수 YA 소설 상을 수상한 『Labyrinth Lost』를 비롯해 판타지 소설 『Star Wars: A Crash of Fate』, 『Brooklyn Brujas』 시리즈 등을 썼다.

제목 : PARACHUTES

가제 : 낙하산

저자 : Kelly Yang

출판사: Katherine Tegen Books

발행일: 2020년 5월 26일

분량 : 400쪽

장르 : YA 소설



*** 전혀 다른 이유로 정반대의 환경 속에서 낯선 나라 미국에 온 두 소녀, 이들을 뒤흔친 비극과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아가는 우정, 사랑, 트라우마에 관한 강렬한 이야기**

‘낙하산’이라 불리는 또래 아이들에 관해서는 클레어도 잘 알고 있었다. 재산과 명예, 사회적인 인지도 면에서 상위 계층에 속한 집 부모들이 여러모로 불만족스러운 중국의 교육 시스템 대신 미국으로 보낸 십대 아이들을 지칭하는 참 그럴듯한 표현이다. 부모와 떨어져 머나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이들은 그곳에서 좁고 불편한 기숙사 대신 일종의 위탁 가정이 되어줄 가족의 집에서 지내면서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졸업을 하면 대부분 부모가 ‘사들인’ 입학 자격에 맞게 대학에 들어간다. 상하이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재벌 집 딸인 클레어의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았지만, 중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할 만큼 어릴 때부터 극성스러운 교육에 시달린 것이 자신을 낙하산으로 만들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개인 교습까지 시켜도 중국어 실력이 통 늘지 않자 클레어의 아버지는 회사 직원의 권유로 하나 뿐인 딸을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필리핀 이민 3세대로 억척같이 일하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다니는 한 달에 무려 2,000 달러나 내고 집에 남는 방에 동감내기 중국인 유학생이 지내기로 했다는 말에 깜짝 놀란다. 할머니부터 엄마, 이제는 다니까지도 틈만 나면 남의 집을 청소해주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와 비싼 집세, 방값을 내는데다 매달 500 달러라는 큰 돈을 필리핀에 사는 엄마의 가난한 식구들에게 보내고 있는 터라, 이런 허름한 집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그런 거액을 내기로 한 유학생이 신기하고 고마운 건 사실이었다.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를 깨부수려면, 할머니와 엄마처럼 평생 남의 집 청소로 흘러 보내지 않으려면 아이비리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다니는 어린 시절부터 굳게 결심했다. 남다른 토론 실력을 세심하게 갈고 닦아온 다니는 곧 다가올 예일대학교 토론 콘테스트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꿈에 그리던 예일대 재학생이 되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대회에 출전하려면 보스턴까지 갈 비행기 값과 체류비가 필요했는데 엄마에게도 말할 수 없어 고민하던 다니에게 클레어라는 그 돈 많은 집 유학생은 오아시스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된 클레어와 다니는 의도치 않게 너무나도 불편한 관계로 엮인다.

상하이에서는 맨날 일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감추지도 못하고 젊은 여성들과 바람을 피워대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때문에 하루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엄마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클레어는 원치 않았던 유학이지만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갈등에서 벗어난 환경이 점점 좋아진다. 비록

좁아터진 방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해야 하고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 과제들에 놀라기도 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이것저것 해야 한다고 일일이 정해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클레어는 제대로 만끽하며 적응한다. 게다가 ‘낙하산’들 중에서도 가장 잘생긴 명문 집안의 아들 제이가 클레어를 꼭 찍어서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학교생활은 더욱 흥미로워진다. 제이와 클레어의 관계가 점점 뜨거워지던 어느 날, 클레어의 소개로 제이를 만난 다니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임을 알아보고 기겁한다.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로 고급 주택가에서 청소 일을 해온 다니는 몇 개월 전에 청소를 하러 갔다가 대낮부터 온 집안에 다 울릴 만큼 격렬한 소음을 내면서 정사를 벌이던 집주인과 마주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남자였다! 제이는 그 날 다니와 함께 청소를 하러 갔던 같은 학교 친구에게 그 불쌍사납고 민망한 꼴을 들키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같이 놀래?’라고 권했던 아주 뻔뻔한 사람이었다. 제이의 반쯤 협박에 가까운 당부로 다니는 차마 클레어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세상 최고의 신사처럼 행동해온 제이의 이중성은 곧 드러나기 시작한다. 클레어는 130명에 가까운 여자 연락처가 제이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가 거짓말과 핑계에 도가 튼 노련한 바람둥이라는 낯새를 느낀다.

한 때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자체가 전교에 자랑거리였던 제이의 지지분한 이면에 당혹스러워하던 클레어는 제이와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재크에게 조금씩 끌린다. 제이처럼 람보르기니나 포르쉐를 몇 대씩 가진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 엄청난 미남도 아니었지만 재크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호감에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 클레어는 다니가 아주 오래 전부터 짝사랑해온 대상이 재크라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제이는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던 여자들과 달리 나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였던 클레어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으로 모자라 불품없는 재크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내고 폭발한다. 이성을 잃고 눈이 돌아버린 제이는 클레어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폭행을 저지르고, 클레어는 충격에 완전히 무너진다. 한편, 자신에게는 친구 이상 더 가까워질 틈도 주지 않던 재크가 클레어와 특별한 사이로 발전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상처를 입은 다니는 토론 대회 준비에 더 몰두하지만 그곳에서도 견딜 수 없는 일을 겪는다. 형편이 어려운 다니가 토론으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해주고 도와줄 방법을 물심양면으로 챙겨주던 토론 코치 선생님이 대회가 가까워진 만큼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는 일대일 강습을 제안하더니 다니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클레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제이, 그리고 한 학생의 인생이 달린 대회를 자신의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코치, 클레어와 다니는 무너진 정신을 붙들고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기로 결심하고 서로를 응원한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딛고 가족, 우정의 힘으로 다시 희망을 찾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켈리 양(Kelly Yang)은 중국에서 태어나 로스앤젤리스에서 자랐다. 13세에 대학에 입학해서 17세에 UC 버클리를, 20세에 하버드 법대를 졸업했다. 졸업 후 아시아 어린이들에게 글쓰기와 토론을 가르쳐주는 ‘켈리 양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저서로는 2019년 ‘Asian Pacific American Award’ 아동문학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FRONT DESK』가 있다.